

올해 성인병 예방 보건교육의 해

보사부, 고혈압·암 집중 계몽키로

보건사회부는 올해를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의 해”로 정하고, 교육을 통해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고혈압”과 “암”에 대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보건교육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만성퇴행성 질환인 순환계질환 및 악성신생물(암) 등의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의

료욕구 증대로 의료 이용량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대한 대처방안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보건교육 사업은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사회부,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기관, 언론기관 등이 협조하여 실시키로 했다.

협회인 자질 향상에 기여

‘90년도 전직원 연수교육 실시

부에서 35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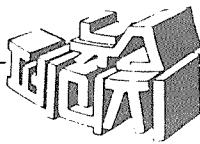
이번 교육에서는 충북대 교육심리과 김동구 교수의 “직장인의 자세와 의식개혁”, 법주사 주지 월탄스님의 “선(禪)과 명상”에 대한 강의 외에 문장대등반을 비롯해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 및 전의사항 수렴 등이 있었다.

이 관영 사무총장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조직의 발전은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상호 협조와, 일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국민 건강관리사업에 더 많은 애착과 궁지를 가지고, 동료간의 상호 이해를 통해 협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健協은 ’90년도 전직원 연수교육을 지난 2월5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보은군 내 속리산에서 실시했다.

체력단련 및 극기훈련을 통한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 및 협동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협회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전국 각시도지



'90년도 건강관리공개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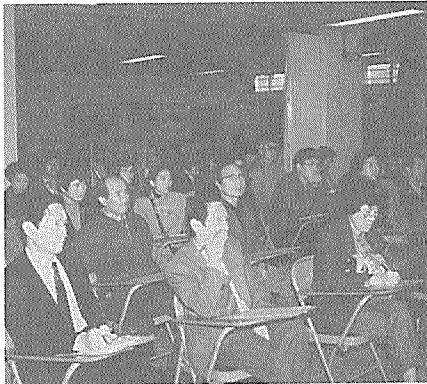
3월부터 매월 4째 화요일 2시

健協 서울특별시지부가 '90년도 건강 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3월부터 개최한다. 각종 질병의 올바른 이해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88년부터 실시되어온 이 공개 강좌는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

각 질환별 전문 강사를 초빙, 실시되는 이 공개강좌는 매월 4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90년도 월별 강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3월 ; 성인병과 영양관리(3.20)
- 4월 ; 가족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
(4. 24)
- 5월 ; 자궁암의 예방과 치료(5.22)
- 6월 ; 고혈압의 치료의 관리(6.19)
- 7월 ; 위장질환과 암의 조기발견
(7. 24)
- 8월 ;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8.21)
- 9월 ; 심장질환의 치료와 관리
(9. 25)
- 10월 ; 성인병과 정신질환(10.23)
- 11월 ; 만성 신장질환의 치료와 관리(11.20)
- 12월 ; 현대 사회와 간장질환
(1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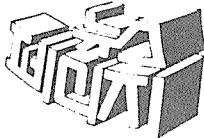
경주 성병간이진료소 설치·운영 예정

- 건협 경북지부 오는 3월께

健協 경북지부가 경북 경주시에 설치되는 성병 간이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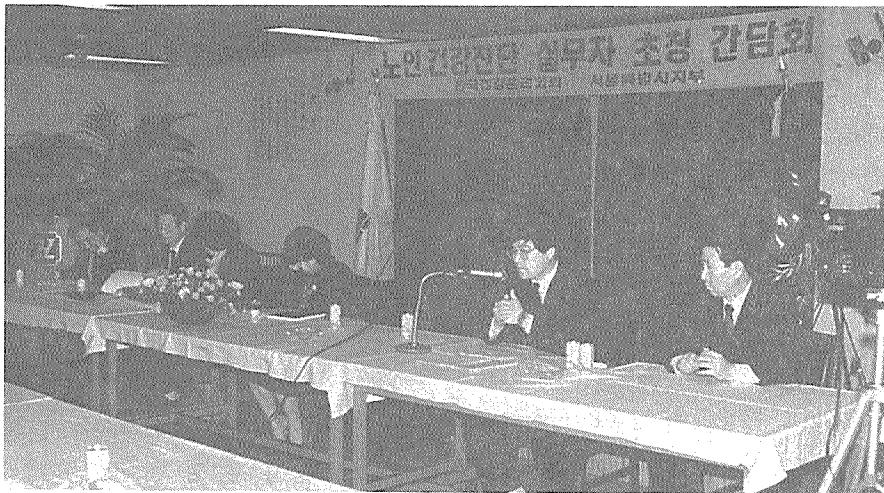
이 진료소는 보건사회부가 성병을 제3자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많은 성병 취약 지역에 성병 간이 진료소를 설치, 효율적 성병관리를 도모키 위해 국고 2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총 1천7백5십명(특수업태부 : 26명)을 대상으로 성병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건협 경북지부가 기술 지원을 전담, 운영케 되는 이 진료소는 현재 설치를 위한 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다.



노인건강증진으로 노인복지 도모

노인 건강진단 실무자 초청간담회 열어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노인건강진단 실무자 초청 간담회를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홍보관에서 가졌다.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간담회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각 구청의 노인복지 담당자 및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노인 건강 검사 사업의 문제점 및 보완책 강구를 위한 열띤 토의를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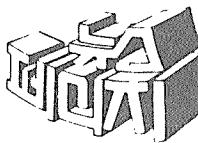
이번 간담회에서는 또, 취약지역 및 노인건강진단 현지 검진, 이상 소견자의 전문의 치료 알선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90년도 보조금사업계획 등 승인

'90. 정기이사회 개최

健協은 '9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지난 2월 26일에 실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사업추진현황, 89년도 조사연구사업 결과, 정도관리사업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89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90년도 보조금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일부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부의, 토의되었다.



농민 건강관리 원활화, 체계화 이룰 듯

'90. 농협 공제조합원 건강검사 시작



'90년도 농협 공제 조합원에 대한 건강검사가 오는 4월경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통하여 농민의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건협에 의뢰하여 지난 '87년 순회검진사업으로 시작된 이 건강검사는 그동안 농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지난 해에는 본회가 건강진단센터로 지정되어 농민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사업이 한층 원활해지고 체계화되어 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검사사업은 조합원이 본회를 방문하거나 본회의 검진버스가 현지에 출장하여 검사를 하게되며 본회에서는 또 농민들의 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자료보급 등의 계몽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또 건강 진단 결과는 책자로 제작되어 농민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건강 관련 학술정보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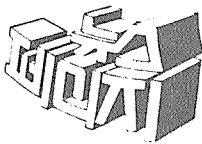
'90년도 의무직 연수 교육



健協은 '90년도 의무직 연수 교육을 지난 2월25일부터 2박3일간 경상북도 경주에서 실시했다.

직원간의 인화단결, 신 검사장비의 소개, 학술 정보의 교환 등을 주 안점으로 하여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전국 시도지부에서 총 95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또, 경북의대 김재식 교수의 “현대의학과 Technicion의 역할”, 한인수 건협 조사연구부장의 “협회 전산화 방향”, 홍광선 검사과장의 “임상 병리의 정도관리”, “소아성인병”에 대한 전문 교육 외에, 지부별 자체 학술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 신 검사장비 소개, 분임토의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늘어난 검사물량 신속한 처리기대

건협 경북지부, 부산지부, 광주·전남지부 최신 생화학자동분석기 구입



▲ 경북, 부산지부가 새로 구입한
다채널 생화학 자동분석기

健協 경상북도지부가 총 1억2천만원을 들여 생화학 자동 분석기(HITACHI 736-20)를 구입, 곧 활용하게 된다.

도민 건강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검사 업무량의 신속한 처리, 인력 및 시약 절감, 정도관리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구입하게 된 이 분석기는 경상북도의 지원과 자체부담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 다채널(Multi Channel) 생화학 자동분석기의 성능은 시간당 동시분석 항목수 24건, 분석가능 항목수 90종 등 기존 장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

어 본회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입했다.

또 健協 부산직할시지부도 경북지부와 같은 장비를 구입했는데, 부산지부의 이번 장비구입은 기존 장비의 노후와 생화학 검사물량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 졌다.

한편 健協 광주·전남지부도 건강관리사업의 원활과 증가되는 검사물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총 9천5백여만원을 들여 생화학 자동 분석기 “에보트 스펙트럼 EPX”를 구입했다.

이 기기는 Albumin외에 16종의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정도관리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